

너부터

88

2021 상반기



한국성폭력상담소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	① 새로운 반성폭력 · 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9	② 우리의 행진을 멈추지 말자!
13	③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1장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후기
19	④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세 번째 임시총회가 열리다
24	뭔대!상담소
27	열린터 다이어리
27	나를 돌보는 음식 : 카레
35	생존자의 목소리
35	그 집을 지날 때마다
40	성문화읽기
40	① 군대 내 성폭력이 반복되는 이유, 그 고리를 끊기 위해
44	②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47	시끌시끌 상담소
47	①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를 만든 1991년부터 2021년까지
53	② 재충전이란 무엇인가
58	아낌없이 주는 나무
63	훈훈한 기부

새로운 반성폭력 · 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앞_성문화운동팀 활동가

9

상호 성적 행위를 할 때
누구나 알고 확인하고 실천해야 하는 원칙,
적극적 합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올해 성문화운동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제가 ‘적극적 합의’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것은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를 발간했을 때입니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 적극적 합의 Affirmative Consent를 강조해 당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되었던 캐나다의 한 성폭력 사건 판결문을 전문 번역한 자료집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상담소는 적극적 합의와 관련된 캠페인을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① 명시적으로 ② 의식이 있을 때 ③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④ 평등하게 ⑤ 모든 과정에서 항상 합의할 것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오프라인 부스를 통해 ‘적

극적 합의 오답노트’, ‘나의 적극적 합의 점수는 몇 점?’ 등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상담소는 수년간 적극적 합의를 이야기해왔지만, 대중에게 적극적 합의는 여전히 낯설고 생소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 합의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대중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는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시동을 거는 시기였습니다. 현재 성문화운동팀은 “새로운 반성폭력 · 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로 ① 가이드라인 발간 ② 릴레이 토크쇼 진행 ③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는 세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인데요, 상반기에는 먼저 우리 사회가 성적 동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대중 인식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10대-40대 총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대중 패널조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을 비롯한 페미니스트, 성폭력 생존자, 퀴어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조사를 각각 진행했고, 자체조사 참여자 중 일부와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자원활동가 하윤님의 도움을 받아 해외 각국에서 진행된 ‘동의/합의 Consent’ 관련 캠페인을 참고자료로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캠페인이 많았습니다. 이미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국가들에서는 정부나 수사기관이 동의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동영상 “차로 배우는 동의”는 캐나다 템즈밸리 경찰이 함께하는 #ConsentIsEverything(동의는 모든 것이다) 캠페인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경찰도 #WeCanStopIt(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동의가 없다면 강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 합의 릴레이 토크쇼는 “동의 동의, 적극적 합의”라는 제목으로 총 3회 진행할 예정이며, 1부 관계편은 6월 3일(목) 오후 7시 30분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적극적 합의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첫 번째 자리였던 만큼 수많은 질문과 새로운 인식을 주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한채윤님의 “적극적 합의란 섹스에 적극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합의에 적극적이라는 뜻”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상대가 성적 행위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적극적 합의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서로 존중하면서 합의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화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적극적 합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릴레이 토크쇼는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 있고 편하게 함께 소통하는 장을 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다가가고 싶어 행사명을 ‘연속 집담회’에서 ‘릴레이 토크쇼’로 바꿨고, 온라인 중계를 잘 하기 위해 영상 송출 전문가를 찾아가 장비 및 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활동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릴레이 토크쇼, 앞으로 이어질 회차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행사를 놓치신 분들은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를 통해 연재되고 있는 연속 기사를 참고해주시고, 하반기에 발간 예정인 자료집을 기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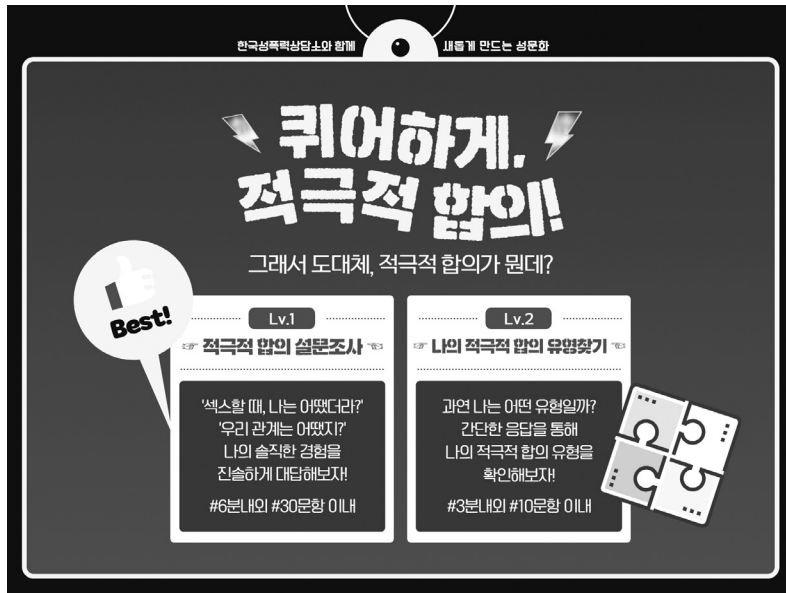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 <동의 동의, 적극적 합의> 1부 관계편

마지막으로 적극적 합의 대중 콘텐츠 제작 활동으로 상반기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온라인 부스로 참여했습니다. “귀여하게, 적극적 합의!”라는 제목으로 열린 상담소 부스에서는 ① 나의 적극적 합의 유형 찾기 테스트 ② 적극적 합의 설문조사 두 가지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적극적 합의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유형 테스트를 만들어보았어요.

하반기에는 예술인들과의 협업으로 시청각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적극적 합의 개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예술인들과 함께 열심히 논의하고 기획하는 중이니 완성된 결과물을 기대해주세요.

성문화운동팀 활동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함께 적극적 합의에 관해 이야기 나눠주시고 상담소 활동 소식을 널리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2021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부스ON,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스

우리의 행진을 멈추지 말자!

닷별_성문화운동팀 활동가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세계여성의날 맞이 연대의 런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나의 의제와 함께 3.8km를 걸거나 뛰거나 움직여서
SNS로 인증하는 캠페인이었어요.

연대의 런데이를 한창 기획하던 2월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넘나들던 시기였습니다.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도 어언 1년,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캠페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기획회의를 할 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는 전무후무한 시기에 <한해보내기> 같은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모를까 캠페인에 대한 상상력은 별로 없었거든요. 참고할 만한 이벤트가 적어 고민하던 참에 몸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신아 활동가의 '마라톤' 아이디어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저는 운동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거리두기 2.5단계의 장기화로 집과 사무실만 오가는 생활에 점점 답답함을 느끼던 참이었거든요. 갑갑함을 호소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안내에 따라 꾸준히 달리기를 연습하고 기록할 수 있는 '런데이' 어플이 유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었겠다, 그걸 캠페인



한강을 건너 국회사로 행진하는 활동가들

으로 녹여내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소는 여성주의 자기 방어훈련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고 퍼트린 만큼 몸 움직임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니 금방 기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집순이인 저에게 혼자 하는 밤 산책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을 만큼 코로나19는 이 세상을 많이도 바꿔놓은 것 같아요. 한창 세계여성의날이 가까워지던 시기에 상담소의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생각한 언론사를 통해 몇 차례 기사화도 된 덕분인지, 캠페인을 시작하던 3월 8일에는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작은 '행진'에 동참 해주셨어요.

유례없는 전염병의 시기를 지나며 언제든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게 되었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느끼던 이유 모를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말도 안 되는 백래시가 넘쳐나고 조각조각 흩어진 말들만 공론장 같지도 않은 공론장을 부유하는 요즘이지요. 저 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연대의 런테이를 이어가는 시기에 기꺼이 3.8km를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인증샷과 함께 나만의 의제와 캠페인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은 후기 하나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매일 하던 런테이지만 묘하게 이 공원을 함께 뛰는 사람들에게서 연대감을 느꼈다. 누군가는 #연대의런데이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밤길을 달리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대신 유대감이 들었다.”

목청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는 것도, 사람들 틈에 섞여 피켓을 드는 것도, 어쩌면 내 솔직한 생각조차 말하기 주저되는 요즘, #연대의런데이를 통해 확인한 연대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캠페인이 진행되었던 일주일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페이스북을 수놓던 각자의 의제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고 변희수 하사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 채용 과정에서의 부조리한 성차별에 분노하는 마음 등 해시태그에 꼭꼭 눌러 담아주신 메시지와 그 이후에 트위터 비영리 광고지원사업 <애즈포굿>을 통해 퍼져나갔던 연대의 런데이 후속 영상에 대한 따뜻한 반응도요. 코로나19로 현실의 광장은 닫혔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을 재현할 수 있어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러너 섭외와 멋진 논평에 힘써준 성문화운동팀 신아 활동가, 참여방법 영상 촬영을 위해 주말에도 서울퀴어퍼레이드 루트로 행진하며 촬영과 티저영상 제작에 힘쓴 성문화운동팀 앓 활동가와 자원활동가 세린님, 이 름님, 인증샷 수집을 맡아주신 자원활동가 지민님과 은희님, 마지막으로 <연대의 런데이> 후속 영상을 멋있게 편집해주신 자원활동가 은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 모두 코로나19로부터, 또 다른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2021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평등한 하반기 되세요! 🍀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1장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후기

명아_반성폭력 운동가

가속-학대-성폭력의 ‘현장’을 말하고 친족성폭력에 맞서는 액션 워크숍이 6월 10일, 7월 1일 두 차례 열렸습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하는 명아님이 첫번째 워크숍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친족 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저녁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안젤라홀에 들어서자 워크숍 시작 전부터 활동가들의 열의 가득한 준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진지한 모습에 얼마나 애써서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진심이신지 알 수 있어서 감동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패널인 조은희 열림터 원장의 발표시간에는 친족성폭력의 정확한 개념과 법적 처벌, 친족성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상담소 통계를 통해 친족성폭력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더욱 신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전 대

응방법으로 법적 대응이 19.5%로 생각보다 낮은 편이었고 주변인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49.4%인 반면 주변인에게 지지받지 못한 비율이 53.7%나 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웠습니다. 주변인들의 지지와 대처가 치유회복과 일상복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기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의 특성 중 자책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아동이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감과 무기력감도 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피해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냐는 기준보다 실제적 피해 규모와 가해자의 학대 행위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를 당하고 배척당하는 상황에서도 가족과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생존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족 부재의 공허감을 채우는 것이 일생일대의 과업이 된다는 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님의 아동학대에 대한 발표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회를 말해준다.”라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법률 행위 무능력자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할 뿐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친권자는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 무단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모든 가해 부모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또한, 김희진님은 아동학대행위자의 75.6%가 부모인 현실에서 가족을 ‘신성한 무엇’으로 만들어놓고 사회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제재 장치가 너무 없다는 점이 친권 제도의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동과 미성년자 보호는 사회의 공동책임이자 의무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를 받거나 견디고 있는 아동이 얼마나 막대한 고통과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친족성폭력에 맞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요하고, 친족성폭력은 ‘성’의 문제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건강, 살 권리에 대한 문제이며 사회가 안고 가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주체로서의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연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매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사회가 가족 내에 발생하는 중대한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화가 났고, 지금까지도 아동들이 방치와 무책임에 계속 놓여 있다는 점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아동학대 및 아동성학대는 국가가 방치하고 사회가 은폐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중대하게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가 가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고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동은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전문의 당연한 내용에 울컥했습니다.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은 전혀 반대의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버팀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김홍미리님의 발표였습니다. '가정폭력' 연구자에게 낯설고도 익숙한 친족성폭력. 그러나 가정폭력과 친족성폭력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성폭력범죄는 가정의 소유물인 여성을 더럽혀서 가정을 파괴한 범죄로 여겨져 가해자를 엄벌에 처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회복의 문제보다는 '정상가정'의 기능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는 행태, 친족성폭력에 대한 논문이 10년에 평균 10개 정도밖에 없을 만큼 담론화가 너무 안 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가정폭력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본질적인 법·제도의 문제로 분리되어 있지만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과 “가족의 이름으로 구축되는 조밀한 폭력관계망”이라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친족성폭력은 가정문제이자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을 해주셨고, 친족성폭력 중단을 위해 어떤 변화의 이론을 만들 것인지, 우리는 각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친족성폭력은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있고, 성역화되고 은폐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폭력은 자율성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겪는 폭력이라고 합니다. 친족성폭력에 관한 담론, 연구, 언어, 정의, 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발달과정을 침해받은 생존자들이 사회와의 관계와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오로지 당사자 자신의 문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폐단단 활동가들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는 정기 1인 시위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가 친족성폭력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고 오직 행정편의적 제도만 남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서지원, 관계맺기 등 장기적이고 다원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친족성폭력 생존자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시스템 때문에 사회적응과 경제생활이 모두 어렵고, 피해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가해자와 자기들끼리 연대한다는 등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막연하게 문제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전문가의 의견으로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고 접근했다는 점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친족성폭력 문제는 상처와 피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권력 관계에 의한 아동의 발달침해이자 인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생존자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법적, 사회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워크숍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도 70명 가까이 시청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워크숍이 초석이 되어 많은 담론이 생성되기를 바라며, 워크숍을 준비해주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큰 위안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 12시 광화문에서는 생존자 스스로 여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정기1인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행정편의적인 논리로 형성되어 '성인이 된 후 10년'이라는 터무니없이 짧은 공소시효, 친족 성폭력 피해는 긴 시간 동안 가족 내에서 발생하며 은폐되는 특성이 있어 생존자가 상담을 받기까지의 기간만 10년 이상인 경우가 55.2%에 달합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이 법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해 또 다른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공소시효만 폐지되었고 공소시효가 지난 모든 피해자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 모든 성폭력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생존자들이 스스로 연대와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정기1인시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성피당당'을 검색하시면 활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세 번째 임시총회가 열린다

김혜정_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2021년 2월 2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정회원 및 참관인들과 함께 임시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떨림과 용기는 서로의 친구'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신임 소장 오매의 후기를 전합니다.

올해 2월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총 3가지였습니다.

1. (보고)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 전달에 대한 중간평가 및 설명(안)

2. (논의1)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안) 승인의 건

3. (논의2)

회원 처분의 건

기록에 따르면, 상담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던 것은 총 3차례였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 10월 11일 소장(이미경님), 부소장(장윤경님)을 선출하는

안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 4월 8일 여악여락 3회 콘서트를 열며 모금을 하기 위해 정관에 기부금 인터넷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안전이었습니다.

그에 이어 2021년, 역사상 세 번째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하게 된 과정은 이랬습니다. 2020년 7월, 상담소뿐 아니라 진보적 여성운동단체, 시민사회,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제기됐습니다. 상담소는 2020년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개 단체만이 아니라 이 사안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영향력 있는 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시장과 관련된 미투 사안이라는 점과 어느 단체가 어느 변호사를 언제 만난다는 점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상임대표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고, 곧바로 서울시 젠더정책특별보좌관에게 전달되었으며, 젠더특보가 해당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의자가 사망하고, 공소권이 없어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범람하게 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진실규명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위와 같은 사실은 공개를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 검찰 발표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성운동단체 관련인들이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를 피의자에게 전달한 사건은 여성운동의 현재를 진단하게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2021년 1월 정기총회를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적어도, 다음 총회에서는 우리 단체도 해당 사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도



몸은 언택트, 마음은 커넥트! 온라인으로 진행된 임시총회

록 2020년부터 10차례 가까운 회의에 참여하며 제안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소 총회에서도 다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상담소 상근활동가들은 2021년 1월부터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하며,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를 성폭력 문제제기 대상자이자 피의자에게 전달한 여성운동가와 여성운동 출신의 정치인, 관료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정치인인데 여성운동단체에서 어떤 ‘공식적’ 관계가 있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시민들에게는 ‘여성운동’으로 연결된 책임을 공유한 세력일 것이므로 우리 안에서 ‘형식적’, ‘공식적’ 관계가 없

다는 답변은 의미가 없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관에는 제명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제명이라는 방식이 책임 논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명 말고 다른 대안이 더 있어야 하며, 책임을 논의하기 전에 다양한 여성운동 구성원들(후원자, 회원, 활동가, 자문/전문위원, 임원, 대표 등)이 어떤 관계 및 직업윤리로 연결되거나 협업해야 하는지 명확한 인식과 가이드가 향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근활동가 회의에서는 피해자 지원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등 피해자를 위한 사건의 진실규명을 1순위 과제로 두면서 해당 사안의 공개를 미뤘었는데, 그러한 판단이 옳았는지 내부토론이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중간평가를 문서로 작성하고 회원들에게 보고하고자 준비하며,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토론하는 시간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관련된 보고 및 논의 안건들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다루고자 했지만, 해당 안건들이 12월에 이미 공고된 총회 안건제안에는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총회를 공고하고 개최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함께 했던 이사회는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그동안의 임시총회들과도 다르고, 그동안의 모든 총회와도 비할 수 없이 무겁고 아픈 안건이었습니다. 임시총회 공고를 보고 후원회원, 정회원들도 괴로운 마음이셨을 줄 압니다. 임시총회 개최 공고 이후 회원들에게 전체 연락을 드리고, 긴 통화를 하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무기명 의견을 사전에 받고, 필요시 따로 만나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함께 평가하고 논의하고 방향을 짚어가기 위해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뤄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임시총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된, 긴장되고, 열띤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는 30초도 걸리지 않던 회의안건 채택과 결정에만 4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건 평가와 중간보고를 하는 안건 1, 향후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방향을 수립·계획하는 안건 2, 회원 처분은 못 하게 된 상황을 공유하고 상담소 회원이라는 관계로서 관련 여성운동 출신가들의 책임 논의를 하고자 했던 안건 3. 여러 의견들이 묵직하게, 수많은 감정을 담아 발언되었습니다.

진보적 시민사회 출신의 남성 정치인이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되고, 곳곳에서 말하고 또 말하기 시작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성평등한 일상의 변화가 왜 이렇게 무수한 돌부리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지, 우리가 스스로 딛고 있던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목격하며 반성폭력 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는 2020년과 2021년이었습니다.

임시총회 이후 그 여파와 상흔으로 탈퇴하는 회원들도 계셨습니다. 그 또한 직면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했던 목적과 목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소명은 무엇일까요? 여성운동가, 성평등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을 피해자가 고발한 지 1년, 조직 내 문제해결과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든든히 지원하면서, 여성운동과 우리 조직 내부에도 남은 이 과제를 계속 고민하며 회원들과 함께 모색해가겠습니다.

임시총회의 자료와 의사록은 상담소 홈페이지 발간자료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월** 1/25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로운 권고를!"
1/28 제30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및 임원 이&취임식
- 2월** 2/10 제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답한다."
2/23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집 밖에서 집을 찾다"
2/25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년 임시총회
- 3월**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캠페인 "연대의 런데이"
3/8 강간죄 개정 촉구를 위한 게임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OPEN!
3/8 낙태죄 없는 2021년!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3/10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장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N번방 운영자, 갓장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3/17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3/23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가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3/24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 4월** 4/1-4/31 또우리자립지원프로젝트 "또우리풀썩기금"
4/6-5/11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 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총4회)"
4/7 보궐선거, 어떻게 생각해? 시민들의 목소리로 함께 말하기
4/8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하는 기자회견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4/13 한국성폭력상담소 서른 번째 생일 재충전의 날
4/15 불법촬영 동반 준강간 사건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악물 성폭력, 확보된 증거에 대한 수사 진전을 요구한다"
4/24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 공방 "반려 식물 키워볼까?"
- 5월** 5/8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5/26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돌입 여성단체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 6월** 6/3 릴레이 토크쇼 "동의, 동의, 적극적 합의" 1부 관계편
6/10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1장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6/14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6/29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쓰기 워크숍 "To 헌법재판소"
6/27 서울퀴어퍼레이드 및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 부스 OPEN!

된다
상담소





나를 돌보는 음식 : 카레

돌고래

어쩌다 알게 됐을까.
우연히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받았던가.
종종 피드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다가 음식들이 맛있어 보였고
사장님이 혼자 한다는 걸 알았을까.
이 식당에 관심이 갔다.

매번 출근하기 전에 가고 싶어 하다가,
준으로 하는 자기계발코스를 하고 어느 기분이 좋은 주말에
점심을 먹으러 갔었다.

가게에는 20대로 보이는 커플이 있었다.
사실 난 다른 테이블에 있었던 것뿐이었지만,
혼자 설레고 기분이 좋기도 했다.
'좋을 때다.'

〈열린터 다이어리〉와 〈생존자의 목소리〉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에세이, 시, 그림 등의 형식으로 신는 코너입니다. 본 코너는 생존자의 고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창구이며, 교정 교열 외의 편집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단소의 다른 글과 관점도 논점도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날 시켰던 카레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새우가 들어갔던 것 같고, 카레와 밥을 리필 해주시겠다고 했고,
 카레가 맛있다고 기억에 남았다.
 그냥 일반적으로 먹던 노란 카레 가루나,
 일본 카레 가루도 아닌 독특하고 깊고 진짜의 맛이였다.

아쉬운 건,
 요즘 들어 위장이 많이 늘어난 나의 배에 조금 아쉬운 재료의 양이었다.
 그래도 카레가 맛있었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가 없었다.
 상큼한 양배추 피클도 맛있었다.

그렇게 맛있는 카레를 맛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계발코스를 이어갔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20대 후반부터는 정말 혼자 살았던 것 같다.
 그전에는 같이 밥을 해 먹는 친구들이 같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내 식사는 내가 책임져야 했다.
 평생 안 했던 일을 해보려니 너무 힘들었다.

(어렸을 때, 학생일 때 나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
 엄마랑 동생들이랑 같이 도넛이나 만들어봤을 뿐...
 이때 나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요리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많은 걸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살려면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요리를 시도할 때마다 느꼈다.
 밥을 해 먹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이야.
 요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존경스럽기도 했다.
 약간 다른 종자같아 보이기도 했다.

밥을 스스로 해 먹으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1. 식재료 준비
2. 레시피 찾기
3. 요리하기
4. 식탁 차리기
5. 맛있게 먹기 + 인스타 업로드
6. 소화하기
7. 설거지하기

이렇게 소소하게만 써도 7단계다.

최근 1년-2년 안에는 소소하게 조리기구를 장만했다.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믹서기.
 근데 착즙기도 사고 싶고, 미니 오븐도 괜히 사고 싶고,
 요리도 장비빨 욕심이 생긴다는 걸 몸소 경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레가 먹고 싶어졌다.
 그날도 어떤 자기계발코스를 줌으로 참가하던 주말이었다.
 점심시간에 맛있는 카레가 너무 먹고 싶었다.
 건더기 양에 살짝 아쉬워했지만,

그 카레 맛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혼자 맘속으로 조용히 용서를 해준 다음(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고(음?)
 다른 메뉴를 시도해보자며 가게로 향했다.(^^)

그날은 무슨 '치킨 버터 카레' 이런 걸 먹었던 것 같다.
 치킨 살이 부드러운 게 너무 맛있었고, 카레 국물(?) 맛이 예술이었다.
 나는 밥보다는 건더기랑 카레를 좋아하는 편인데,
 계속 먹다 보니 밥은 여전히 많고 카레가 많이 모자랐다.

사장님은 접시를 보시고는 카레를 더 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좋다고 하고 먹었다(사장님이 챙겨주시는 게 좋았다).
 역시 카레가 예술이었다.

주방 한쪽으로 보이는 데에 카레 가루 통으로 보이는 통들이 잔뜩 보였다.
 솔직히 그 통이 어떤 종류인지 적힌 글자는 못 봤지만,
 다양한 향신료이거나 카레가루(카레도 향신료이던가...?) 같아 보였고,
 그래서 주인분이 카레 고수로 보였다.

그리고 여자분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게 멋있어 보였고,
 왠지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 데,
 카레 키트가 광고 종이가 세워져 있는 걸 봤다.
 얼마지, 몇인 분인지, 어떻게 요리하는 건지, 여쭙보고,

다음날(일요일이었음)도 오픈하는지 여쭙봤다.
 내일은 휴일이라고 하셨다.

'헉, 나는 내일도 먹을게 필요하지.' (냉장고에 마땅한 재료가 없었다.)

고민하다가 카레키트를 샀다.
 키트는 코코넛밀크, 사장님이 야채와 토마토를 넣고
 정성껏 끓인 퓨레(? 적절한 단어를 모르겠다...),
 카레 가루 + 매콤한 이름 모를 가루 + 통후추,
 오레가노(무슨 초록 잎인데 뭘지 모름) + 카레
 마지막에 뿌려 먹는 후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돌아오면서 행복한 고민을 했다.

‘무슨 재료를 넣을까?’

순간 떠오른 재료가, 애호박, 브로콜리, 새우다.

애호박은 원래 좋아하고,

브로콜리는 예전에는 싫어했다가 좋아하게 됐지만

딱히 먹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카레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냉동 새우!!

지금의 하우스메이트에게 전수 받은 요리 재료다.

(쿠팡에서 냉동으로 사서 손질해서 먹는 중이다)

나중에 또 키트를 사서 요리를 해봤지만,

재료가 너무 많으면 맛이 없다.

아님 어찌면 내가 두부를 넣어서 그런 걸까...

애호박, 브로콜리, 새우는 환상의 조합이었다.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서 그런지 카레의 풍미도 좋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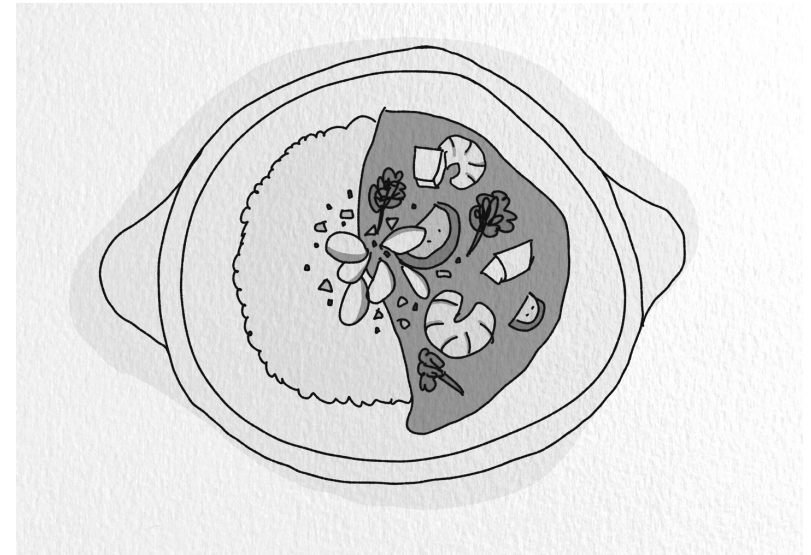
키트로 요리해서 그런지 조리법도 간단했다.

종종 요리할 때 모든 요리는 라면을 끓이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물을 올리고, 주재료 라면을 준비하고,

부재료로 파나 계란을 준비해서 함께 끓이고,

맛있게 끓으면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된다.



© 물고래

물론 더 복잡하게 여겨지는 요리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리과정이 쉬운 것 같기도 하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외로워지고 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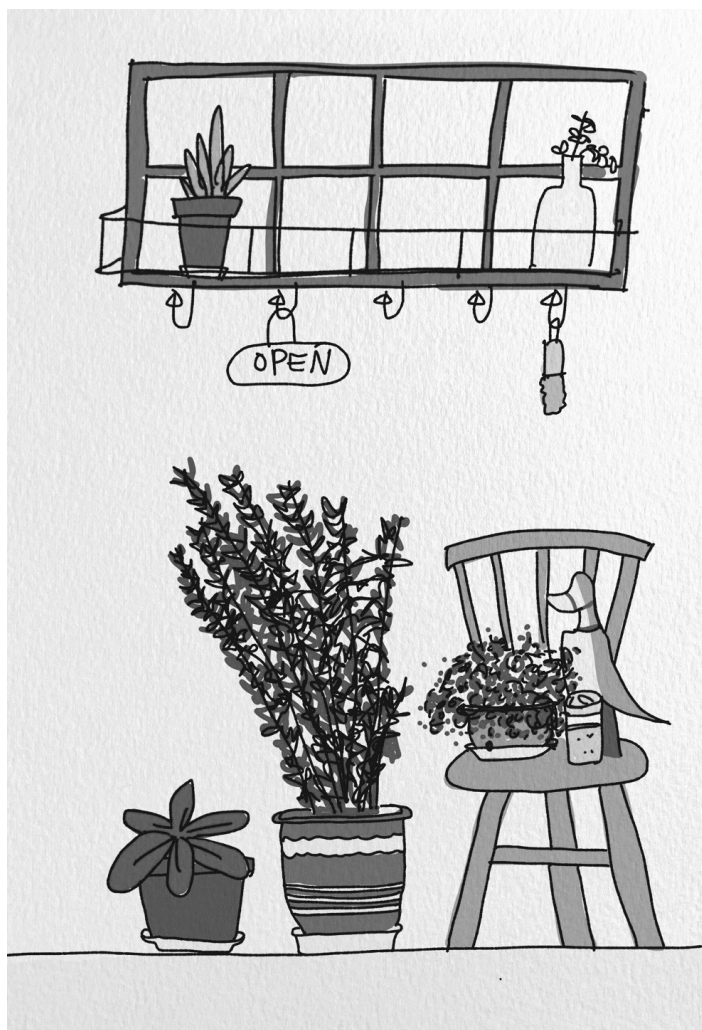
집에 있을 시간도 많아져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요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고 뿌듯하다.

요리를 해서 먹을 때는 뿌듯하다. 괜시리 즐겁기도 하다.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변화가 급격한 요즘에 카레 한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건강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어떨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스스로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지길 바라게 되는 요즘이다. ☺



© 돌고래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선이

오랫동안 혼자 집에 있다 보면 가끔 과거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화가 날 때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나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던 당시 중학생으로 기억되는 슈퍼집 놈의 집이 우리 집과 가까웠는데 그 집을 지날 때마다 화가 점점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이다. 서울 살 때는 생각도 잘 안 났는데 몇 개월 전부터 고향 집에 내려와 살기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화가 치밀었다. 벌써 20년도 넘었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 새끼는 가정도 이루고 잘 살고 있겠지? 그놈의 부모는 가끔 보인다. 못 보던 차가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는 그 집에 불을 지르고 싶거나 빨간 라커로 아동성폭력범죄자라고 크게 써 놓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내가 진짜 이 새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분노가 올라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안으로 끓아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보다 한 번씩 폭발시키는 게 정신 건강에는 더 나은 것 같다. 그리고 뭐든 오래 묵혀 둘수록 안 좋다. 편지까지 썼다. 내가 바라는 건 진정 어린 사과와 나와 같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 하지만 상담사님은 편지를 전해도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하거나 사과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또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전달은 하지 않

기로 했다. 정작 상처를 준 쪽은 잘 기억을 못 한다. 복수를 해봤자 범죄자가 되어 감옥 가게 될까 봐 싫고,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신에게든 누구에게든 그냥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았을 거라 믿는다.

어린 시절, 그날은 쌍둥이 여동생과 라면을 사러 슈퍼에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라면 두 봉지인가 세 봉지를 사 들고 함께 언덕 넘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거스름돈을 주는 눈빛부터 이상했는데 그 슈퍼집 놈이 우리 뒤를 쫓아왔다. 우리는 뭔가 공포를 느꼈고 마구 도망을 쳤다. 언덕에서 갑자기 그놈이 동생 이름과 내 이름을 큰소리로 다급하게 여러 번 불렀다. 나는 멈칫했다. 그때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줄 몰랐다. 계속해서 다급하게 이름을 불렀다. 동생은 그대로 도망쳤고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키지는 않지만 천천히 다가갔다. 정말 그때를 두고두고 후회했다. 나도 동생처럼 그냥 도망칠걸. 타임머신이 발명되면 큰돈을 주고서라도 돌아오고 싶은 순간이다. 이름을 부르니까 혹시나 급한 일인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선한 마음을 냈던 것이 너무 후회됐다. 언덕 바위 뒤쪽에서 성폭력을 당했고 근처에는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는 말에 나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동생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만 했을 뿐이었다.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긴 듯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그 기억을 무의식 저편으로 묻어 두었다. 기억이 다시 되살아난 것은 학교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나는 잘나가는 무리들에게 찍혀서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 학교 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했다. 혼자 극복하기 위해 일기를 썼는데, 그때 갑자기 어렸을 때 성폭력 당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비

난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서 미칠 것 같았다. 일기장 몇 권이나 채울 정도로 미친 듯이 글을 썼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다. 언제는 한 번 중학교 때 성폭력 전문 강사가 찾아와 모두 눈을 감고 성폭력 당한 경험에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이분이 과연 나를 도와줄까? 라는 기대로 손을 들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했지만 끝내 손을 들지 못했다. 믿을 수 있는 어른은 없었다.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도 담임선생님은 알고도 묵인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나는 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하며 자가치유를 해나갔고 스물세 살쯤 되던 해에 드디어 동생에게 이 일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날 대학교에서 오랜만에 고향 집으로 돌아와 동생을 만나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 일을 털어놓았다. 말할 때 몸이 긴장되고 떨렸다. 동생은 같이 화내주며 나를 이해해주었다. “왜 이제 얘기했어?”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 해주었다. 그리고 그때 혼자 도망간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미안해했다. “아니야. 너가 왜 미안해. 너도 어렸잖아. 너라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상담을 받았던 성폭력센터 선생님도 동생이라도 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들을 때 분노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다. 나도 당하고 싶지 않았다. 동생이라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짜증났다. 사실 내 맘속 한구석에는 그 당시 나를 구하러 와주지 않은 동생에 대한 원망도 조금은 있었다. 아니다. 그래도 나는 동생이 당하지 않은 것이 훨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동생도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동생이라도 도망쳐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동생도 어린 시절 아빠의 친구에게 당했던 성폭력에 대해 털어놓았다. 정말 화가 나고 슬펐다. 난 지금 서른두 살이고 지금은 더욱 마음이 강해져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해자들은 잘 살겠지만 피해자들은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낸다. 그 시간들이 아깝고 그래서 더욱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다.

성폭력센터 선생님은 가해자에게 느끼는 분노 이외에 가족들에게 느끼는 분노도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어렸고 그때 부모님은 매우 엄하고 자주 동생과 나를 혼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비난받거나 혼날까 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하면 혼날 것 같았고 무시당하면 너무 괴롭고 수치스러울 것 같았다.

이제는 스스로 내면의 힘을 키웠다. 나는 이제 그놈과 대적할 수 있게 되었다. 집에 가는 길 그 슈퍼를 지날 때마다 잔뜩 긴장하고 주먹을 꼭 쥐 채 걸어다녔던 어린 소녀를 떠올리니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제는 안전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꼭 지켜줄게.” 

회원소식지 나눔터 89호 투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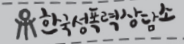
생존자의 목소리




지금-여기 성폭력 피해 생존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소식지 <나눔터> '생존자의 목소리' 코너에 실리게 됩니다.

본 코너는 성폭력 생존자의 경험과 삶을 생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들과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생존자의 목소리



원고 작성 및 게재 관련 안내

형식: 에세이, 그림, 시 등 자유형식

분량: A4 3매 이내(1회 게재)/6매 이내(2회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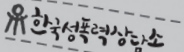
보내실 곳: 이메일 f.culture@sisters.or.kr

문의: 성문화운동팀(02-338-2890)

기간: 2021년 11월 30일까지

* 원고는 회원소식지 나눔터, 상담소 블로그에 게재됩니다.

*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군대 내 성폭력이 반복되는 이유,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유랑_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9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피해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유랑 활동가의 글을 전합니다.

2013년, 군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세상을 떠난 여군이 있었습니다. 2015년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성폭력 피해로 해군 여군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고, 2018년 국방부는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에서 두 가해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군 선임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은 공군 여군이 또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바로 신고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군 상관들은 오히려 사건을 없던 일로 하자며 피해자를 회유하고 은폐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의 큰 공분을 샀고, 곧 국방부는 군 검 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익히 보아온 장면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보도된 후, 국방부는 항



6월 22일 국회 여가위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

상 새로운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왜 군대 내 성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까요?


군대 내 성폭력이 반복되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대 내 여군의 현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여군은 1만 4천여 명으로 병사들을 제외한 간부들 사이에서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소수집단인 여군은 '진짜 사나이'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군대에서 모순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너는 여자가 아닌 군인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여성성을 의도적으로 지우기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석에 여군 앉히기' 등 객체화된 '여성'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요구 사이에

* "여군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한겨레, 2021년 6월 14일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9275.html>

서 여군은 부대 배치 시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진급, 업무, 회식 등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군을 같은 동료 군인으로 보지 않고 배제하는 문화는 성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쉽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군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여군은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이는 곧바로 소수집단인 여군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자가 '관심병사'가 되고 주변의 비난, 소문, 따돌림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를 이야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를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한 수는 32.7%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44%)'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각 부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분리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가를 써야 했습니다. 또 훈령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압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한 뒤 이어진 것은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압박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성평등하지 않은 조직 문화, 성폭력을 사소하게 바라보는 인식, 피해자를 오히려 낙인찍고 비난하는 분위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뿐인 대책을 매번 새로 발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규정과 매뉴얼이 조직 안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 내 조직문화와 인식을 점검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의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유명무실했는지, 조직이 어떻게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시키려 했는지, 어떤 2차 피해가 있었는지 낱알이 밝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군의 인식을 제고하는 작업은 성폭력 대응뿐 아니라 군대 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군이 동등한 동료 군인으로서 인정받고堂堂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일 때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는 더 말할 수 있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평등한 군대는 군대 내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김지은_『김지은입니다.』 저자

‘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으로서
평등의 에코(echo)-100에 함께한 김지은님의 글을 전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시민이 마음을 모았다. 차별과 혐오를 끝내고, 인간의 존엄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제약을 받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제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받는다. 가족일 수 있고, 친구나 동료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자라면, 노동자라면, 장애인이라면 이럴 것이다’ 등의 협소한 판단으로 ‘정상’의 기준선을 제멋대로 그어버린다. 일정 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정상’의 낙인을 찍고 다른 공간에 가둔다. 이런 행동이 같은 인간 사이에 분리와 격차를 용인하는 ‘차별’로 명명된다.



5월 2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 돌입 여성계 기자회견

곳곳에 뿌리 깊게 내려앉은 구별지움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하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소수자들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국가가 해야 할 몫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노력하지 않고, 침묵하고 방관했다. 때로는 선택적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변화로 만들지는 않았다.

미투 이후 ‘여성을 채용하지 않겠다’, ‘여성과 일하지 않겠다’,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 ‘일반적 여성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직장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직장 내 폭력과 다르지 않은 성폭력에 유독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을 씌운다. 상하 권력 관계와 폐쇄적 조직문화에 의한 범죄는 그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는 남성

이 될 수도 있고, 중간 간부가 될 수도 있다.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왜 다르다고 구별지어 선부르게 판단할까? 모두를 동일한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본적인 존엄을 지켜준다면 그 어떠한 종류의 가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위치에 있는 피해자마저도 강고한 벽 앞에 서 있는데, 법이 보장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차별의 높은 벽 앞에서 얼마나 큰 좌절과 고통을 느껴야 할까? 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이를 언행에 옮겼을 때 그것은 곧 사회적 차별이 되고, 부당한 문화가 된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 곧 폭력이 현실이 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고, 더 많은 좌절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편견과 차별이 만연해 있다. 문제를 마주하고 논의를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된다. 절망과 불신을 주는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모두의 관심이다. 차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한 공감을 키우는 것,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타심을 갖는 일은 누군가를 위한 배려이자 나를 향한 존중이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적인 기준의 잣대는 없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부디 그런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살고 싶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30주년 맞이 돌아보기, 나아가기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를 만든 1991년부터 2021년까지

란_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30주년을 앞두고 활동가들은
그동안 상담소의 반성폭력 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기 위해 다양한 TF 활동을 해왔어요.
어떤 활동과 변화가 있었는지 사무국 란 활동가가 전합니다.

형법 제32장이 ‘정조에 관한 죄’였던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30년 동안 상담소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원인과 구조를 분석, 해체하며 대항 담론을 만들고 관련 법 제도를 재정비해왔다. 개소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상담소 운동의 현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했다. 상담소가 펼쳐온 반성폭력 운동의 색깔, 결, 지향, 정치성 등을 공유, 정리하여 상담소가 가진 역량과 자원, 위치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역할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천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 비전, 스마트워크, 홍보, 규정 등으로 30주년 TF를 구성했고 모든 상근활동가가 참여했다. 2021년 현재 TF별 논의와 활동을 통해 2021년 30주년 기념 슬로건, 기념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상담소의 비전 - 원칙, 지향, 가치 만들기

지난 30년간 한국사회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을 평가하고 그 가운데에서 상담소의 위치를 점검하는 작업은 비전TF에서 이뤄졌다. 상담소의 미션, 비전, 핵심 역할, 시대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활동 방식, 내용의 변화 필요성, 여성주의 운동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등 다각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30주년 비전 선언문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가까운 이웃 단체 3곳을 방문해 각 조직의 전략과 비전, 평가 과정을 나누었고, 상담소가 만나는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온라인 기반 대중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0주년을 먼저 맞이한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 그리고 20주년을 3년 전 맞이했던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과 만남을 통해 변화하는 여성운동의 지형 속에서 조직별 비전 찾기 과정과 의미화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자문위원 2회, 자원활동가 및 소모임 참여자 1회, 성폭력피해생존자 1회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상담소의 핵심 역할과 영향력, 시대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상담소의 역할,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및 협력,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세부적인 주제에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설문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어떻게 생각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총 516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상담소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를 묻는 문항에는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때’ 도움이 된다고 느

낀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고, 상담소 활동에서 아쉬움을 느낄 때를 묻는 문항에는 ‘상담소 활동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 때’ 아쉬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63.6%로 가장 많았다. 지난 30년간 상담소가 해온 활동에 대한 평가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상담 및 지원’ 활동을 제일 잘해왔다고 평가한 응답이 90.1%로 가장 높았고, 앞으로 집중해야 할 활동영역으로는 ‘법 개정 및 판례 바꾸기’ 활동이 67.1%로 가장 높았다. 개소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슬로건에 대해서는 ① 침묵을 깨뜨리고 우리는 움직인다 (31.6%) ②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34.7%) ③ 당신의 말하기를 환대하는 흔들림없는 연대(8.5%) ④ 함께 버티는 힘, 용기가 여는 가능성(25.2%) 중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가 가장 선호하는 슬로건으로 꼽혀, 30주년 슬로건으로 확정되었다.

활동하는 사람들 - 기록 아카이빙과 스마트워크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쌓일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서 활동해온 사람들 덕분이다. 상담소의 활동을 응원하는 회원들과 상담소의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이사, 감사 등 임원진, 상담소의 수많은 업무들을 기꺼이 함께 나눠주는 자원활동가들과 반성폭력 운동의 든든한 연대자인 자문위원들까지 상근활동가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30년을 함께 만들어왔다.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활동연혁, 발간자료 정리 및 공유는 상담소 활동의 의미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를 원활하게 하고자 스마트워크 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 및 논의도 지속되었다.



‘우리가 만드는 온라인 소통의 규칙과 약속’을 담은 탁상달력

스마트워크 TF는 모든 일정과 업무용 자료 등을 아카이빙하고 앞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을 탐색하면서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내부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온라인 소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병행되었다. 프로젝트 결과로 ‘우리가 만드는 온라인 소통의 규칙과 약속’을 정하고 이를 2020년 하반기에 제작한 굿즈(2021년 탁상달력)에 담았다.

상담소에 참여하기 - BI 리뉴얼과 홍보

새로운 후원회원 및 기존 후원회원들과 상담소의 멤버십을 강화하고, 상담소의 정체성을 가시화하고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제작하는 활동도 진행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표현하는 로고 및 서체를 변경하고, 모든 어플리케이션(명함, 브로셔 등)을 통일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새로운 로고 및 서체, 어플리케이션은 7월 초에 완성되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새로운 로고는 기존의 로고에서 연대를 이루는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형태를 담았다. 각기 다른 주체들이 여러 방식으로 운동의 영역에서 한 데 얹혀 연결되고 있음을 형상화했고, 다양한 구성원이 연대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의미를 담았다. 상담소의 로고 및 서체와 통일성을 갖도록 부설 기관인 열림터와 올림의 로고 및 서체도 새롭게 변화했다.

상담소 활동이 더 많은 시민 동료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안정성과 가독성을 높인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과 회원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논의 또한 이뤄지고 있다.


규정, 매뉴얼 정리하기 -

피해자 지원업무 윤리규정(안) 제정 및 사건지원 매뉴얼 제작

상담소 내부에 존재하는 주요원칙들을 재정비하고 상담 및 연구윤리를 강화하여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규정 TF 활동도 진행되었다. 상담소 내부 주요 규정 리스트를 정리하고, 상담 윤리 규정 마련 및 상담 사건지원 내부 매뉴얼 제작,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내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상담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윤리적 의무와 권리, 이것이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상담활동가 윤

리규정은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모든 상근활동가가 전화상담을 하는 현재 상황에서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동안 흩어져있던 업무 매뉴얼들을 한데 묶어 한눈에 보기 편하게 편집하여 전화상담실 안에 비치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지속된 30주년 TF 활동은 2021년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어진다. 하반기에는 30주년 비전 선포 및 기념식, 상담소의 지난 30년을 정리한 반성폭력 운동의 아카이브 도록 제작 사업,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새로운 30년의 시작을 마주한다. 성폭력을 둘러싼 여러 정치 지형의 변화, 반성폭력운동과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강해지는 백래시, 돌파하고자 하는 힘을 막아서는 폭력에 상담소는 유연하면서도 단단함을 잃지 않으며,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반성폭력 운동을 해나가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로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재충전이란 무엇인가

백목련_사무국 활동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재충전이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하다. 재충전의 행복은 그 순간에 유한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순간 다시 일하는 몸을 만드느라 벽찬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나를 포함한 우리 활동가들은 일과 삶, 지향과 노동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 책무가 큰 영역에 종사하는 만큼 자신과 동료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열정과 기력이 빠르게 고갈된다. 그래서 소진 예방과 재충전, 돌봄이라는 단어를 활동의 정석처럼 되뇌고 있는 건 아닐까.

재충전 역시 어떤 활동이다. 잘 쉬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전략이 필요하다. 주어진 시간과 비용 안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상담소에서는 만 3년차 이상의 활동가들에게 치무규정에 따른 재충전 휴가를 부여한다. 여기에 올해는 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생일에 활동가들이 네 명씩 조를 꾸려 재충전의 날을 보냈다. 두 활동에서 공통적인 나의 주제는 ‘좀춤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었다.

내가 활기를 되찾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활동에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나는 여러 이유로 계획했던 일정이 취소되고 하루, 하루 버티는 중이었다. 그 결과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겨우 재충전휴가를 가게 되었다. 고작 며칠 여행 다녀오고 나서 주로 잠에 취해 있게 되었다. 근무일 기준 10일이라는 휴가는 분명 길었으나 나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허무하게 사무실로 돌아왔다.

왜 이렇게 느린지! 나는 꼭 겪어봐야 알게 된다. 잠을 많이 자면 가득 충전된 전지전력처럼 될 줄 알았는데 자기고민 없는 재충전 휴가는 오히려 허무함만 남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쉬는 상태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더불어 나가떨어지기 직전에, 살기 위해 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지쳐 있는 때에 갔어야 잠의 무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나는 바쁘게 움직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기운을 얻는 편이다. 이런저런 일도 도모하고 누군가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빼야 잡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재충전 휴가에서는 떠오르면 바로 해보기를 실천했다. 좋았던 영화 여운이 가시기 전에 다시 보기, 멀리 사는 친구 보고 오기, 화초 식재 수업 다녀오기, 좋아하는 식당의 분점에 가보기, 근교에서 바람 쐬고 오기, 운동도 빠지지 않고 하기, 여차저차, 여차저차... 아쉬움 없이 잘 노는 동안 문득문득 동료들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내가 참 많이 컸다'라는 뿌듯함도 느꼈다.

사무실을 떠나 새로운 기운을 얻고 돌아오면 지친 동료들을 보며 들뜬 나를 잠재워야 한다.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상태로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무실 분위기에서 걸돌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료와도 일을 잠시 내려두고 행복했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아쉽게도 상담소 생일맞이 재충전의 날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세여서 전체 활동이 어려웠다. 그래서 조모임 제안자가 활동을 제안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최대 4명씩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상근자 회의에서 전체 나눔을 하기로 했다. 나는 '손과 입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알차게 보내는 재충전의 날'을 제안했다. 처음 계획은 오전에는 쿠킹 클래스(식사), 오후 산책 후 쿠킹 클래스(제과)나 영화 감상, 기념품으로 밀키트 배부였는데 주변에서 활동가 소진 계획표냐고 놀렸다.



‘부지런히’ 팀이 직접 만든 비건 요리들

다행히 나와 섬의 결이 맞는 동료들이 모여 같이 일정을 조금 더 여유롭게 조정했다. 오전에는 우리 집에 모여서 비건 음식을 함께 만들고 성대하게 차려 먹었다. 음식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근교에 나들이 가는 조에 재료비만 받고 팔기도 했다. 오후에는 한강 산책 후 인근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 카페에서는 타로 리더인 활동가가 고민 상담 타로점을 봐주기도 했고 보드게임에 몰입해 잠시 현실을 잊기도 했다. 촘촘한 활동만큼 많이 웃고 많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실 그다음 날부터 전날의 유흥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일에 빠져들어야 했지만, 아직도 종종 재충전의 날 이야기를 하곤 한다. 다른 팀에선 어떤 웃(기고 슬)픈 일화가 있었는지, 우리 팀에서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날의 사진까지 모두 웃음 버튼 같다. 보이지는 않으나 긴장이 풀어지고 좀 더 끈끈해졌다는 느낌도 든다. 희노애락의 균형이 맞아 들어서이지 않을까. 새로운 기운을 환기하고 스스로의 본질을 되찾아 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30년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되묻는다.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재충전이란 무엇인가. 



인천 앞바다로 떠난 '개소의 런데이' 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신 신규회원님들, 환영합니다.

oopiuu, 강기범, 강재영, 강재원, 강지원, 고임숙, 고재영, 공주, 광민환, 광은지, 구범석, 구향모, 국민, 권미정, 권홍빈, 권효설, 김가인, 김건지, 김경희, 김다은, 김대삼, 김도현, 김동한, 김물결, 김미현, 김민수, 김민철, 김병관, 김보경, 김서연, 김선혁, 김성훈, 김세희, 김세희,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종, 김수향, 김승호, 김시우, 김연수, 김연우, 김연유, 김영환, 김예을, 김예은, 김유빈, 김윤아, 김정덕, 김주은, 김지영, 김지우, 김지윤, 김지훈, 김재윤, 김창명, 김태희, 김하나, 김하림, 김하윤, 김학선, 김현수, 김현준, 김형근, 김혜민, 김혜진, 김호연, 김희라, 김희원, 나운민, 나윤지, 나인영, 남메아리, 류신희, 류하연, 류현준, 류호찬, 명신상회, 박서현, 박솔, 박우진, 박정민, 박주현, 박준하, 박준호, 박준호, 박지원, 박지현, 박찬규, 박찬양, 박현지, 방영화, 배화정, 백무송, 변유경, 상상파워 출판사, 서석균, 서혜원, 서휘륜, 선웅, 설원희, 성민우, 손지용, 손태서, 손현우, 송현정, 신누리, 신우람, 신혜림, 썸스테이지, 안은혜, 여은경, 연대현, 염미지, 오승준, 오현정, 용운경, 우효상, 유민상, 유법재, 유용석, 유정수, 유정훈, 유현아, 윤경진, 윤보라, 윤해준, 이건휘, 이대혁, 이대현, 이대호, 이도경, 이동영, 이병철, 이선호, 이성인, 이순애, 이승승, 이요단, 이윤희, 이윤재, 이은미, 이은호, 이정화, 이조향, 이주영, 이주호, 이주희, 이준현, 이지원, 이진우, 이진우, 이참슬, 이현슬, 이현주, 이혜정, 이화진, 이희승, 이희승, 이희진, 임성준, 임소희, 임영선, 임재덕, 임재경, 임희수, 장선주, 장예리, 장주영, 장하나, 진병욱, 진서래, 진혜진, 정성아, 정은희, 정경길, 정호윤, 정효정, 조영백, 조윤성, 조인경, 조준모, 조혜수, 조혜정, 존존, 진규원, 차영선, 천호승, 최건호, 최다운, 최미현, 최민서, 최민아, 최민정, 최연우, 최유리, 최익진, 최지은, 최태순, 최하나, 최형욱, 최희진, 표주성, 필름다빈, 한승호, 한정빈, 한지연, 황서연, 황효진(이상 211명)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aaami, ssy, 강가람, 강가에, 강경인, 강광내, 강길모, 강남식, 강동희, 강동록, 강민경, 강민성, 강민지, 강보길, 강상현, 강성규, 강소연, 강소희, 강숙영, 강양희, 강영, 강영순, 강영화, 강예진, 강윤정, 강은진, 강인화, 강재희, 강지민, 강지윤, 강창일, 강태원, 강희진, 계정문, 고금이, 고보경, 고봉설, 고선주, 고성관, 고은별, 고임숙,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지연, 고지현, 고하영, 고희선, 공경희, 공다연, 공수현, 공주, 광경화, 광보배, 광영화, 광옥미, 광윤이, 광하진, 광현지, 구민주, 구민희, 구분효, 구현모, 구현지, 구혜원, 권경아, 권구홍, 권김현영, 권나현, 권다혜, 권상범(리치몬드), 권서현, 권선경, 권세린, 권세윤, 권소영, 권솔, 권수현, 권수혜, 권영신, 권인선, 권인숙, 권정, 권주영, 권주희, 권지연, 권혜정, 권효중, 금철영, 기독교위드윙센터, 김애슬, 김은정, 김가림, 김가영, 김가현, 김강빈, 김경선, 김경아, 김경진, 김경찬, 김고은, 김광진, 김광현, 김규원, 김규호, 김기로, 김기혜, 김길우, 김나연, 김나연, 김나영, 김나은, 김나은, 김나희, 김남형, 김남준, 김다미, 김다영, 김다은, 김다은, 김다혜, 김다희, 김다희, 김다현, 김대근, 김도린, 김도연, 김도연, 김도윤, 김도홍, 김도희, 김동명,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로사, 김라나, 김명민, 김명선, 김보래, 김보배, 김문영, 김문주,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례, 김미선, 김미슬, 김마욱, 김미현, 김민진, 김민규, 김민범, 김민범, 김민수, 김민은,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태, 김민환, 김범선, 김보명, 김보연, 김보화, 김삼미, 김상원, 김상정, 김새롬, 김새별, 김서화, 김석주, 김선경, 김선미, 김선아, 김선애, 김선재, 김선재,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모, 김성문, 김성수, 김성욱, 김성자, 김성희, 김세명, 김세원, 김세윤, 김소라,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정, 김송연, 김송이, 김수, 김수라, 김수민, 김수민,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희, 김수희, 김순자, 김슬아, 김승재, 김승현, 김시연, 김시원, 김신아, 김안나, 김안나, 김애라, 김양지, 김양희, 김엘림, 김여진, 김연경, 김연경, 김연수, 김연우, 김연재, 김연희, 김영나, 김영룡, 김영선, 김영숙, 김영선, 김영택, 김영환, 김영희, 김예람, 김예리, 김예림, 김예지, 김요섭, 김용선, 김우연, 김원국, 김원식,

김유리, 김윤희, 김유영, 김유진, 김윤경, 김윤경, 김윤중, 김윤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별, 김은솔, 김은아, 김은하, 김은희, 김은희, 김이슬, 김이슬, 김인숙, 김인숙, 김인혜, 김일륜, 김재설, 김재원, 김재원, 김재호, 김재희, 김정민, 김정수, 김정아, 김정완, 김정은, 김정형, 김정혜, 김정희, 김종우, 김종우, 김종희, 김주아, 김주연, 김주영, 김주은, 김주현, 김주희, 김주희, 김준, 김준별, 김준수, 김지선,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현, 김지호, 김지훈(김해리), 김진리, 김진별, 김진아, 김진용, 김재원, 김재원, 김재영, 김춘화, 김치연, 김탁환, 김태영, 김태완, 김태원, 김하나, 김하나, 김하영, 김한선혜, 김한슬, 김해경, 김현란,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지, 김현직,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선, 김혜선, 김혜연, 김혜영, 김혜원, 김혜윤, 김혜은, 김혜인, 김혜정, 김혜준, 김혜지, 김혜진, 김혜진, 김호진, 김하숙, 김효선, 김효숙, 김효정, 김효진, 김효진, 김효현, 김희경, 김희경, 김희란, 김희영, 나미나, 나윤경, 나인선, 나혜선, 나희영, 남민영, 남순아, 남시우, 남운영, 남정현, 남지은, 남지영, 남현미, 남현우, 남현지, 남효정, 노미선, 노선이, 노성윤, 노영은, 노유성, 노윤주,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노태운, 노태형, 노희설, 너트리그룹(주), 노경선, 노명용, 도서출판 움직씨, 노정호, 류란, 류지은, 류진희, 류현진, 류효윤, 류효정, 류희준, 마민지, 마준희, 목소희, 무인카페 쉬는시간, 문경희, 문귀영, 문기선, 문미라, 문미정, 문수연, 문윤정, 문은혜, 문재연, 문준희, 문지영, 문지원, 문진오, 문형준, 문혜준, 문효진, 문효진, 문희영, 민난주, 민정원, 민혜영, 박건용, 박기민, 박기슬, 박기완, 박나연, 박다위, 박덕임, 박려욱, 박명선, 박명화, 박문정, 박미란, 박미선, 박미슬, 박미정, 박민아, 박민자, 박민주, 박민지, 박보영, 박보은, 박부진, 박상훈, 박상희, 박서원, 박서진,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세민, 박세진,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소영, 박소희, 박송이, 박수경, 박수미, 박수연, 박수용,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환, 박승수, 박승호, 박시원, 박아름, 박아름, 박아리(Park Aileen), 박영희, 박윤희, 박윤미, 박윤성,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선, 박은자, 박은진, 박이수, 박인기, 박재문, 박재민, 박정순, 박정연,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정훈, 박정현, 박종희, 박주영, 박준숙, 박지나, 박지수,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영, 박지오, 박지은, 박지은, 박지원, 박지희, 박진아, 박진영, 박진표, 박찬양, 박찬희, 박창경, 박초롱, 박한샘,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우, 박혜남, 박혜하, 박희원, 박희정, 박희주, 반순미, 반주영, 방은재, 배경, 배도준, 배명진, 배셋별, 배선민, 배성진, 배순희, 배우미, 배자하, 배진영, 배하늘, 배현진, 백경훈, 백미로, 백서영, 백성길, 백세희, 백수미, 백윤서, 백은영, 백인애, 백지선, 백지연, 백현, 변순임, 변승현, 변주희, 변지은, 삼봉한의원, 서권일, 서다희, 서명숙,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보일, 서상환, 서성진, 서순진, 서연희, 서용완, 서원, 서윤정, 서인석, 서정민갑, 서정애, 서정표, 서재유, 서지은, 서진, 서현아, 서현아, 서혜미, 서혜진, 석아름, 선우준, 선재희, 선희갑, 설연자, 성기원, 성연이, 성애랑, 성지수, 성현아, 성혜정, 소희성, 손경이, 손다혜, 손명구, 손미연, 손미정, 손상열, 손소희, 손슬기, 손연정, 손우성, 손유진, 손준성, 손지민, 손차민, 송다은, 송명희, 송상민, 송석진, 송승한, 송승훈, 송용원, 송유정, 송윤진, 송인경, 송지영, 송진아, 송차명, 송현민, 송형민, 신경숙, 신경옥, 신경혜, 신고은, 신근철, 신다희, 신동현, 신명숙, 신민정, 신상호, 신성용, 신수아, 신영미, 신예슬, 신유정,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훈, 신지선, 신지혜, 신진, 신필규, 신한나, 신한슬, 신현정, 신현주, 신혜미, 신혜숙, 신희원, 심다은, 심선지, 심성보, 심승주, 심아영, 심조원, 심혜린, 심혜림, 심효진, 안경훈,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분순, 안원숙, 안위, 안유정, 안윤아, 안윤정, 안재훈, 안정규, 안지희, 안창화, 안철민, 안춘기, 안태희, 안형운, 안희경, 양경아, 양동현, 양민희, 양선화, 양성욱, 양성은, 양수안나, 양유경, 양윤정, 양은희, 양이슬, 양정민, 양정아, 양해석,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어진희, 엄은지, 엄현경, 엄희수, 여은진, 여지윤, 여진아, 오경민, 오경은, 오경희, 오선곤, 오성화, 오성훈, 오세희, 오수연, 오수진, 오승미, 오승민, 오승이, 오연경, 오영일, 오유미, 오윤하, 오재형, 오정진, 오종찬, 오주연, 오현주, 우석원, 우성희, 우안영, 우원, 우윤지, 우춘희, 우혜림, 원경주, 원민경, 원성혜, 원순경, 원찬희, 위은지, 유경미, 유경민, 유경희, 유다솜, 유병준, 유보람, 유서연, 유선영, 유세정, 유수연, 유승규, 유승민, 유승진, 유연정, 유영서, 유예리, 유인규, 유지아, 유지혜, 유진, 유필유, 유하나, 유현미, 유현숙, 유영하, 유혜진, 유호정, 윤경진, 윤나래, 윤다정, 윤다희, 윤미래, 윤순우, 윤소미,



윤소정, 윤소정, 윤소진, 윤수련, 윤수진, 윤숙경, 윤승현, 윤아름,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용호, 윤자영, 윤정선, 윤정원, 윤정희, 윤지원, 윤현아, 윤형심, 윤희영, 윤선하, 이강훈, 이건정, 이경미, 이경숙, 이경진, 이경호, 이계형, 이계화, 이귀환, 이규리, 이규호, 이규화, 이기백, 이나연, 이나영, 이나임, 이난주, 이남주, 이다은, 이다정, 이도열, 이동규, 이동원, 이동은, 이명숙, 이명신, 이명현, 이문주, 이미경, 이미령, 이미정, 이미화, 이민기, 이민아, 이보미, 이보배, 이부덕, 이산, 이상미, 이상미, 이상진, 이상용, 이상은, 이상재, 이새롬, 이서연, 이서영, 이서희, 이선영, 이선택, 이선훈, 이선희, 이설화, 이성은, 이성주, 이세나, 이세린, 이세민, 이세영, 이소리,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 이수안, 이수연, 이수열,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숙현, 이순화, 이슬기, 이슬아, 이승구, 이승숙, 이승은, 이승준, 이승진, 이승훈, 이애리, 이여경, 이연정, 이연주, 이연지, 이연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완택, 이용준, 이유태, 이원필, 이원형, 이원홍, 이유나, 이유미,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선,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 이은경, 이은심, 이은애, 이은정 프로덕션, 이은지, 이은화, 이장우, 이재원, 이재원, 이재호, 이정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종연, 이종은, 이종희, 이주혜, 이주희, 이준기(박은혜), 이준범, 이준형, 이준희, 이준희, 이준희, 이지민, 이지아,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는, 이지는, 이지는, 이지는, 이지는, 이진모, 이진솔, 이진희, 이창수, 이채영, 이창애, 이하연, 이하영, 이하은, 이한은, 이혜사랑, 이혜원, 이향심, 이현미, 이현수, 이현우, 이현주, 이현하, 이현화, 이혜경, 이혜정, 이혜인, 이혜진, 이호선, 이호진, 이홍은, 이홍은, 이희린, 이희동, 이희설, 이희수, 이희화, 임건호, 임경진, 임규정, 임금희, 임기택, 임서영, 임설아, 임성윤, 임소정, 임여경, 임예은, 임오주, 임유영, 임은구, 임은재, 임정수, 임정옥, 임주희, 임지숙, 임지연, 임지영, 임지현, 임친용, 임정, 임하나, 임효진, 임홍섭, 임희윤, 장다혜, 장도희, 장미정, 장성희, 장수경, 장수진, 장여경, 장연정, 장연주, 장영아, 장예리, 장예지,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은재, 장정윤, 장정희, 장지숙, 장진, 장혜란, 장혜린, 장혜윤, 장효정, 전누리, 전민주, 전병미, 전소연, 전소영, 전수인,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민, 전영은, 전유경, 전유나, 전은유, 전은재, 전재희,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지혜, 전혜영, 전화정,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경직, 정광, 정광철, 정교화, 정기영, 정기원, 정나리, 정다솔, 정대근, 정대린, 정덕기, 정동연, 정두리, 정두영, 정문영, 정미경, 정미사, 정민성, 정민수, 정민아, 정민희, 정보리, 정보배, 정복련, 정상순, 정선영, 정소린, 정수연, 정순철, 정슬아, 정여진, 정연주, 정영미, 정영서, 정영석, 정영애, 정예, 정예슬, 정옥실, 정유림, 정유빈, 정유서, 정유정, 정윤경, 정은령, 정은아, 정인호, 정재우, 정재하진은, 정정기, 정종인, 정주성, 정준애, 정지운, 정지은, 정지현, 정지현, 정지혜, 정지훈, 정진옥, 정진주, 정진화, 정현, 정현우, 정혜윤, 정혜훈, 정희수, 제하나, 조경은, 조계산, 조규선, 조무호, 조민아, 조민우, 조서연, 조선우, 조선주, 조성민, 조성은, 조소연, 조소연, 조수연, 조순영, 조승주, 조연주, 조영선, 조영선, 조영주, 조원영, 조유빈, 조유진, 조윤서, 조은샘, 조은숙, 조은율,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설, 조인옥, 조일래, 조재연, 조준희, 조지원, 조지혜, 조진희, 조혜연, 조혜민, 조혜인, 조훈재, 주광용, 주맏기공소, 주명희, 주소현, 주식회사통보, 주호준, 지성엽, 지승경, 지오, 지인숙, 지현, 진새록, 진재호, 차민호, 차성안, 차영선, 차현수,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유리, 채은혜, 채현숙, 채훈병, 천정아, 천정환, 최강백, 최경식, 최근우, 최금래, 최대연, 최동건, 최동석, 최동원, 최란, 최문영, 최미경, 최미림, 최미숙, 최민옥, 최민정, 최병훈, 최보름, 최보미, 최보영, 최보원, 최빛그림, 최서영, 최서윤, 최석우, 최성실, 최성호, 최성희, 최세진, 최소영, 최수림, 최수연, 최숙희, 최아림, 최여정, 최영애, 최영주, 최예스란, 최옥경, 최용득, 최원일, 최유정,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재용, 최정은, 최종원, 최지녀, 최지원, 최지은, 최진안, 최찬양, 최현정, 최현윤, 최현정, 최혜란, 최혜린, 최혜영, 최효선, 최희범, 추민주, 추정희, 추지현, 탁수정, 탁형민, 표하늘, 표혜민, 하다영, 하룡, 하승수, 하승표, 하연수, 하유림,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주현, 하지는, 하희정, 한기모, 한만진, 한문형, 한미화, 한민규, 한보경, 한보라, 한소망, 한수경, 한승진, 한승희, 한신복, 한여선, 한영미, 한예림, 한유림, 한윤미, 한윤호, 한지연, 한진영, 한재윤, 한재영, 한희정, 함경진, 함아름, 허라금, 허선형, 허성준,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민, 허지은, 허지혜, 허재영, 허태균, 현정순,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순기, 홍은미, 홍은정, 홍일선, 홍주은,

홍지수, 홍지은, 홍진경, 홍찬숙, 황미선, 황선유, 황성기, 황성욱, 황성인, 황승원, 황승희, 황승경, 황예나, 황인술, 황재일, 황정진, 황지영, 황진선, 황혜림, 황휘, (주)피알판촉, (주)한샘(이상 1,365명)

▶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명득,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김경현, 김명륜, 김미주, 김민정, 김소연, 김연경, 김유란, 김유엘, 김지은, 김효선, 풍지팩토리,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목동 명성교회 청년부, 박미란, 박성환, 박수진, 박아영, 박인필, 박종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정철, 복인혜, 송미현, 신상호, 안백린, 안현진, 오주현, 원미진, 유정화, 이덕화, 이문희, 이상화, 이우열, 이우미, 이우정, 이혜사랑, 이현상, 임나영, 임미화, 임초롱, 임효진, 장정수, 장철우, 전현지, 정다희, 정대린, 정명종, 조인석, 조일래, 존타클렌, 천수빈, 최수진, 최유진, 최진주, 추미애, 하동호(이상 65명)

▶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린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문식, 강소영, 강은재, 고병진, 고화정, 관선하, 금보경, 김광현, 김나래, 김남희,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문주, 김미우, 김미진, 김민성, 김석희, 김선화, 김소라, 김소연, 김수민, 김수연, 김수잔, 김수진, 김산아, 김아리, 김여진, 김연순, 김원오, 김유숙, 김유엘, 김유정, 김윤혜, 김이슬, 김인환, 김주연, 김지국, 김지환, 김지혜, 김차연, 김태연, 김혜나, 김현지, 김혜연, 김혜진, 김희도,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영미, 노유민, 노하연, 류수민, 류종현, 목소희, 문숙영, 민슬기, 박계나, 박기원, 박미나, 박미정, 박상희, 박세중, 박아름, 박영리, 박유영, 박인림, 박정숙, 박정옥, 박준숙, 박현희, 박혜민, 박혜선, 박효정, 배용준, 배정원, 백상준, 서범원, 서영민, 서혜인, 성주희, 소롭티미스트 서조클립, 손정은, 송미현, 송민성, 송지영, 송지영, 송희원, 신경혜, 신영미, 산용범, 심연희, 심진설, 심현설, 안분순, 안소연, 안재희, 안효진, 양윤희, 양주애, 양자애, 엄다희, 엄정진, 오경은, 오두환, 오선호, 오연서, 오영일, 오정배, 오정희, 오희중, 유선옥, 유예리, 유용석, 유진영, 유재원, 유형진, 이정선, 이정아, 이다은, 이도행, 이명희, 이미홍, 이병주, 이상연, 이성아, 이수정, 이슬아, 이어진, 이연지, 이옥영, 이윤석, 이은미, 이은정, 이정숙, 이정화, 이종국, 이주설, 이주혜, 이준용, 이지영, 이지혜, 이찬희, 이철희, 이태복, 이향심, 이향화, 이형찬, 이혜림, 이혜진, 임나영, 임명순, 임수현, 임유영, 임윤정, 임은희, 임지연, 임지현, 임치선, 장경준, 장다혜, 장명환, 장주영, 장희진, 전수인, 전순연, 전순유, 전수기, 전혜영, 정고은, 정다연, 정민석, 정민애, 정선희, 정순희, 정은경, 정재윤, 정정희, 정정희, 정창수, 정하나, 정현주, 조민정, 조영래, 조윤기, 조윤서, 조은희, 조종진, 조현아, 주혜명, 주혜정, 진보영, 진수희, 채송희, 최강현, 최민철, 최성희, 최세은, 최수연, 최영주, 최유리, 최윤미, 최정림, 최정진, 최희진, 추연정, 표아림,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한국야마자키마작(주), 한영규, 한예림, 한진희, 허민숙, 허복옥, 허정연, 허제량, 허지선, 홍나영, 홍윤기, 황동하, 황은순(이상 223명)

▶ 반성폭력 연구 활동에 힘을 실어 주시는 올림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김경주, 김경희, 김민우, 김민정, 김순원, 김윤영, 남승현, 마정윤, 박대진, 박주현, 박준수, 배상영, 백정원, 서혜진, 송유진, 오경은, 오진이, 윤은정, 이강화, 이진선, 임유진, 장은주, 전유나, 조현규, 한예림, 황선미(이상 26명)

▶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Mr. Mr.적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성중, 강순영, 강혜린, 거창덕유중 위안부 뱃지 펀딩, 광복만, 권혁주, 기새연, 기하연, 김가영, 김가희, 김진지, 김경년, 김경민, 김경은, 김광민, 김기태, 김기훈, 김관경, 김병, 김민성,



김병현, 김보화, 김상열, 김성덕, 김세나, 김세욱, 김수빈, 김수진, 김승호, 김아현, 김안정, 김영남, 김영주, 김예인, 김윤아, 김은수, 김일남, 김재인, 김정환, 김주아, 김지민, 김지성, 김지영, 김지윤, 김지혜, 김진영, 김창희, 김태현, 김한샘, 김해림, 김해성, 김향란, 김혜림, 김혜원, 김혜정, 남상현, 남윤정, 노선이, 두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드림캐처 해외팬클럽, 롤키퍼(Law-Keeper), 류수민, 류호찬, 메갈크레프트, 명신상회,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사람, 문아라, 박건영, 박노을, 박다솜, 박두리, 박선은, 박성은, 박성희, 박수진, 박아름, 박원희, 박장호, 박정훈, 박종웅, 박주현, 박지환, 박지희, 박진우, 박차연, 박찬규, 박치우, 박현아, 박혜하, 박효인, 백정민, 비킵트루, 서예림, 서울영상고등학교 1학년 2반, 서주연, 서효원, 석상인, 석현수, 성정아, 손자용, 손현우, 송현환, 신민경, 신수현, 신예지, 신은주, 안승주, 안정현, 양문영, 양승훈, 연혜진, 오유나, 원민지, 유법재, 유은지, 유해정, 유호정, 윤나영, 윤미희, 이진호, 이규정, 이동국, 이미경, 이민영, 이슬비, 이승연, 이유, 이윤주, 이은아, 이정민, 이주영, 이지는, 이지현, 이지혜, 이혜선, 이현성, 임수민, 임영선, 임은수, 장소정, 장주리, 장현희, 전소율, 전수민, 전순유, 전예진, 전재희, 전지은, 전진희, 전해영, 정연우, 정재훈, 정정길, 정정희, 정지연, 정효진, 조선영, 조수윤, 조윤성, 조은희, 조일래, 조혜인, 주식회사 이봄, 진규원, 차고은, 차불휘, 천가영, 천재원, 최기성, 최다혜, 최다희, 최란, 최병엽, 최원휘, 최윤정, 최윤희, 최지혜, 최화영, 최화진, 추빛나, 파도, 팰애플, 표민지, 하나, 한가연, 한승효, 한은지, 현유리, 홍다빈, 홍윤주, 황윤정(이상 192명)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올림, 부설 쉼터 열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 회원을 일괄등록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도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소 후원회원 회원정보 변경하기>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회원 문의: 닥별 02-338-2890, ksvrc@sisters.or.kr
부설 쉼터 열림터 회원 문의: 낙타 02-338-3562, yeolim94@sisters.or.kr

훈훈한 기부

{ 상담소 }

강단 님의 당 떨어질 때 먹을 마가렛, 초코파이, 델로스
강유기 님의 영화 <우리는 매일매일> 촬영할 때 쓴 무선 마이크 한 대
곽혜선 님의 총회할 때 목마르지 말라고 보내준 생수와 차, 이온 음료
권정 님의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김상룡 님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버섯 모듬 세트
김여진 님의 연대와 응원을 담은 힘내심(홍삼스틱) 한 박스
김효선 님의 빨강고 달콤한 사과 한 박스
노신애 님의 아삭아삭 식감이 좋은 사과와 참외
마미 님의 알록달록 고칼로리 크리스피 도너츠
만두 님의 응원, 미어로 화이바 한 박스
문상철 님의 새콤한 한라봉과 달달한 꿀고구마
밋 님의 고소한 하루견과 한 박스
박광수 님의 사~원한 수박 한 통
박영숙 님의 향기로운 홍차 세트
사자 님의 현지 직송 한라봉 두 박스
시원 님의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보드게임 <이지해 게임> 한 세트
알 님의 온라인 행사를 더 잘하기 위한 오디오 케이블 두 개
양성희 님의 아가자기한 화과자 한 박스
은서 님의 부드러운 롤케익 두 박스
이산 님의 따뜻한 모닥불 무늬 수세미와 손편지, 꽃감 한 상자
이은심(보짱) 님의 카페인 충전을 위한 드림백 세트
임경진 님의 크고 맛있는 딸기 한 박스
장광미 님의 든든한 식사와 후식, 소고기와 피자, 케이크
장요석 님의 풀것풀것한 파베기, 핫도그, 필도나쓰
조인섭 님의 명절을 풍요롭게 해준 와인 열일곱 병
캔디, 렉사, 마루의 상담소의 새 바람을 응원하는 떡
푸른나비 님의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꿈꾸는 달콤한 쿠키 한 박스
익명의 생존자 님의 상큼한 유기농 유지창 세 박스
전 활동가들의 따뜻한 마음처럼 따끈따끈한 떡
<대한여한의사회>의 부드럽고 폭신복신한 떡
<성북청년시민회>의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c정, 비타민c 음료 각 한 박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나뉘 먹으니 더 맛있는 피자 세 판

{ 열림터 }

나랑 님의 친족 성폭력 생존자의 삶을 그린 만화책 *27-10*
<심심잡화점 책방> 최호선 님의 연령대별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그림책 매월 두 권



한국성폭력상담소